

종합·해설

박근혜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강재섭 “총선 불출마... 책임 지겠다”

한나라 총선가도 ‘빨간불’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당 공천 결과에 대해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당 지도부를 공격하고, 강재섭 대표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한나라당 내분이 확산되고 있다.

총선을 불과 보름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을 정치개혁의 후퇴이자 약속과 신뢰 위반이라고 박 전 대표가 신랄히 비판하고 나섰기에 따라 당장 한나라당의 총선 과반의 확보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더욱이 이날 박찬숙·공성진·윤건영·차명진·심재철 의원 등 수도권 공천자 20여 명까지 “퇴색된 개혁공천”이라고 비판에 가세하며 청와대와 당 지도부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이상득 국회부의장의 총선 불출마와 일체의 국정개혁 행위 중지를 촉구, 파문이 확산할 조짐이다.

하지만 이에 강재섭 대표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대응하고 나서 파문이 수습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 대표는 이날 오후 7시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4·9 총선 공천 결과를 둘러싼 당내 논란과 관련, “저는 국민 여망인 정권교체의 마무리가 되는 이번 총선의 승리를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던질 각오가 돼 있다”며 “저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공천과 관련 “나는 속았다. 무원칙 공천에 대해 당 대표와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지원유세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이어 “저는 복잡한 것이 싫다. 그 결과로 책임을 지겠다”며 “더 이상 친박이다. 친MB다 이런 얘기 나오질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표는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많은 사람이 제가 속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는 어쩌면 속

을 줄 알면서도, 믿고 있었다. 약속과 신뢰가 지켜지기를 바랐다”며 배신감을 표명했다.

박 전 대표는 “이 문제는 누가 공천을 받고 못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유리하고, 불리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옳고 그름의 문제이고, 우리 정치가 발전하느냐, 뒤로 후퇴하느냐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작금에 한나라당에서 일어나는 공천 파동과 당 개혁 후퇴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은 당을 더 개혁하지는 못할망정, 이미 개혁되어 있는 것조차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시킨 당 대표와 지도부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나라당 수도권 공천자들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당 지도부와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선 이후 지난 몇 달 동안을 되돌아보며, 정권교체의 초심으로 민심 수습에 나서줄 것을 건의한다”며 “우리는 서민을 위한 정책혁신, 잘못된 인사, 의미가 퇴색된 개혁공천 등에 대해 우리 자신부터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과를 드리며, 이와 관련해 청와대와 당 지도부 역시 국민께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형님 공천’ ‘형님 인사’ 등으로 민심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이상득 국회부의장은 18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향후 일체의 국정 개혁 행위를 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9 총선 표밭

김태욱, 200석 친박극장 요청



○김태욱 한나라당 광주 동구 예비후보는 23일, 아시아문화전당 지구에 1천200석 규모의 친박극장을 건립해줄 것을 이명박 정부에 강력 요청했다고 약속.

김 후보의 이 같은 발표는 최근 지역 공인 예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 도봉구에 건립된 ‘열린 극장 창동’과 같은 대규모 친박극장을 광주에도 지어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여 이뤄진 것.

김 후보는 “유인촌 장관이 서울 문화재단 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열린 극장 창동’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 문화 예술인 간담회에서 ‘현재의 문화예술 전담은 그 기능을 대폭 수정해야 하며, 특히 돈 버는 문화 전담이 되기 위해서는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충분히 건의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박주선, ‘자치구간 경제조정 특별법’ 제정 약속



○박주선 통합민주당 광주 동구 예비후보는 23일 ‘자치구간 경제조정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

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 동구와 북구 지역간 인구 편차가 4배에 이르는 등 불합리하게 유지되면서 지역간 균형 발전 및 자치행정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지연되고 있는 동구와 북구간 경제조정을 위해 ‘자치구간 경제조정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겠다”고 다짐.

조영택 공천 확정 ‘지역민 섬기는 정치 떠들겠다’



○조영택 통합민주당 광주 서구갑 예비후보는 23일 두 차례의 국민 여론조사 경선 등 치열한 경쟁을 통해 공천이 확정된 뒤 “정치 초년생의 자세로 지역민들을 섬기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이날 “공천 작업 지연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는데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죄송스럽다”면서 “반드시 국회에 입성,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견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

이용섭 ‘영산강 뱃길복원 사업 시대착오적 발상’



○이용섭 통합민주당 광주 광산구를 예비후보는 23일 이명박 대통령의 가짜 물류 처리를 위한 ‘영산강 뱃길복원 사업’의 정부 추진 의지 표명과 관련,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

이 후보는 이날 “가짜물류 처리를 영산

강 뱃길을 통해 처리하는 발상은 도로망이 갖춰진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영산강 복원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는 다른 개념으로, 옛 모습 복원과 수질개선 등 환경에 대한 충분한 검증은 거쳐 친환경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

강운태, 부활절 연합예배 참석 지역민과의 만남



○강운태 광주 남구 예비후보(무소속)는 23일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지역민들과 만남의 기회를 갖는 등 민심잡기에 주력.

강 후보는 이날 광주시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광주시 남구 구동 시민회관에서 열린 부활절연합예배에 참석, 지역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대화의 시간을 갖는 등 표심잡기에 분주.

김영진 ‘강력한 야당 건설에 힘 보태겠다’



○김영진 통합민주당 광주 서구를 예비후보는 23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18대 총선 통합민주당 공천자 전진대회 및 민생제일주의 비전 국민과의 서약식’에 참석, “강력한 야당 건설에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

김 후보는 이날 “이번 공천 과정을 통해 지역 현안을 챙기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견제하라는 민심을 파악했다”면서 “농림부 장관과 4선 의원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중진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섬기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피력.

강기정, 선거사무소 개소 클린선거 서약식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은 2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클린선거 서약식을 갖기로 해 눈길.

강 의원은 이날 “축제가 되는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을 준수하는 투명한 선거운동을 펼치면서 다양한 정책과 비전 제시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신뢰받겠다는 취지”라고 언급.

김경진 ‘한반도 대운하 저지에 적극 나서겠다’



○김경진 광주 북구갑 예비후보(무소속)는 23일 “국회에 입성, 한반도 대운하 저지에 적극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광주전 평화활동에 참여한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환경 파괴 우려가 높은 대운하 사업을 발전시키는 명목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우는 실용면에서 맞지 않는 만큼 국회에 입성, 대운하 저지에 힘을 쏟겠다”며 지지를 당부.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비례 1번 강명순 목사

광주·전남 김주훈·한영·강성만·박재순씨 등 경합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각 계파와 지역별로 최종 결과를 예측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천심사위원회는 600여명의 신청자를 40~50여명으로 압축한 뒤 23일까지 명단을 최종 확정짓고 24일 최고위원회를 거쳐 발표 예정이나 당 안팎에선 청와대와 비례대표로 선정한 10여명의 명단을 넘겨줬다는 청와대 개입설이 나오는 등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다.

호남권에서도 이재우 의원이 “이번만큼은 소외됐던 호남 지역에서 당의 비례대표 당선권에 호남 지역 후보를 40% 이상 배정해야 한다”며 “현재 당 지지율로 볼 때 비례대표 당선권은 26명 안팎인 만큼 9명 가량이

호남에 배정돼야 한다. 전남에 3명, 전북에 3명, 광주에 3명씩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 기대를 한껏 부풀리고 있다.

이날 오후 현재 비례대표 1번으로 ‘빈민촌의 대모’로 알려진 강명순 목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학 시절부터 민민 운동에 투신해온 강씨는 1986년부터는 ‘부스리기 선교회’를 창립해 빈곤층 아동 후원을 해왔으며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엔 ‘신나는 조합’이라는 공동체를 조직, 국내 최초로 마이크로 크레디트(무보증 소액대출) 사업을 시작해 노숙자 등 도시 빈층 지원활동도 계속해 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비례대표 2번도 한선병력이 있는 장애인 사회활동가를 영입, 배정할 것

으로 알려졌다.

천이계 남성 비례대표 후보군의 경우 김장수 전 국방장관이 비례대표 2번으로 거론됐으나 노무현 정권에서 활동했던 경력 문제가 돼 2번에서 밀려 상위권에만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태 의원의 경우 지역공천에서 친박계 김무성 의원의 공천 탈락시 형평성 차원에서 동반 탈락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어 비례대표 공천시 또다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기에 조윤선 신임 대변인은 상위순번을 받을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김주훈 전 조선대 총장, 한영 최고위원, 강성만 당 부대변인, 임항순 호남항우회장, 전선수 광주시장 자문위원 장, 문상우 전 전남도의원, 박재순 전남도당 위원장 등과 박근혜 전 대표 공보특보를 지낸 이정현 전 부대변인이 치열한 경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노동교육원 주최
신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정책과제 토론회
토론회 일시: 2008년 3월 25일(화) 오후 2~6시
토론회 장소: 광주 신양파크호텔 대연회장 (전화:062-228-8000)

결산공고
24시간 FAX 및 E-mail로 접수합니다.
光 報 廣 告 廣 告 廣 告
전화: (직)062-227-9600
FAX: 062-227-9500
E-mail: design@kwangju.co.kr

신안군 공고 제2008-107호
무연분묘 개장공고(1차)
신안군수
신안군 공고 제2008-240호
분묘개장공고(1차)
화순군수

산행안내
3월 30일(일)
3월 25일(화)
3월 26일(수)
3월 27일(목)
3월 29일(토)
3월 30일(일)